

전북교육 핵심 '공동체 복원'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가정의 달 맞아 정책 방향 제시 기초학력 책임·AI 맞춤형 학습·교원 행정 감축 등 내놓아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공동체 복원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아이의 성장은 가정과 학교, 교사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통합적 과정"이라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교육공동체의 연결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교육은 아이·부모·교사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확력신장 3.0'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인성을 기반으로 사교력



과 진로 역량까지 함께 키우는 교육 모델로 기초학력부터 진로·정주까지 이어지는 통합 성장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약속도 내놓았다. 먼저 어린이날과 관련해 기초학력 책임제를 통해 초등 단계부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 맞춤

학습과 전 교과 독서교육,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승의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조하며 행정업무를 30~50% 감축하고, 권역별 학교행정지원센터 설치와 AI 행정비서 도입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력신장도 어렵다"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을 배운 이진로,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통합 교육생태계로 전환해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교육복지 강화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 협약... 고용안정·복지 확대 추진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교육복지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회적 약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부지를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건의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채용 관리 조례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교육복지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공무원과 동등 기준으로 적용하고,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상시직 전환과 시간제 근로자의 수당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상시 업무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연수와 복무 규정 역시 공무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실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돌봄과 특수교육 분야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복지지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현장 핵심 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정책 협의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 교육공무직의 참여를 확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교는 노동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은 차별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도내 초등생 10명 중 9명 "사교육 참여"

전교조 설문 결과... 늦은 귀가·놀이 부족 '뚜렷' 생활 만족도 높으나 학년 높아질 수록 행복지수 낮아

전북지역 초등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놀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초등학생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0.1%가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어(68.5%)와 수학(62.5%)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5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22.3%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로 귀가 시간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줄었고,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에 달했다. 6학년의 경우 33.1%가 밤 8시 이후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침 시간 역시 늦어져 자정을 넘긴다는 응답도 8.5%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적지 않았다. 학생의 93.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했다.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도 17.2%로 나타났다. 43.2%는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놀이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시간 이상 논다는 응답이 32.9%였지만, 이에 대해 '시간이 없다는' 응답도 11.3%였다. 시간이 주어질 경우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56.7%)가 가장 높았다.

가족과의 대화는 비교적 활발했지만 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71.2%가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고 답했으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7.7%에 그쳤다.

생활 만족도는 86.3%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고민은 공부와 친구 관계, 외모, 부모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고민 비율이 더 높았다.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2%에 그친 반면, '걱정된다'(21.2%)와 '잘 모르겠다'(26.8%)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워 불안감을 나타냈다. 부모에 대해서는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학습 부담과 통제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드러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놀이와 휴식, 관계 중심의 교육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현대차 노조와 간담회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노동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 지역 산업, 노동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식노동자 연중 고용 전환, 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동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이 교실에만 머무르면 학생과 지역 산업 모두 성장 기회를 잃는다"며 "교육과 산업 노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임금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정책 공약에 포함했다"며 상시 전일제 전환과 교육복지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 지역 산업, 노동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풍·수학여행·현장실습 등 교외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외학습지원센터(가칭)' 설립 공약을 제시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의 가치 교육을 강조하며 "노동인권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책임과 권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정직·신뢰·공정은

교육과 산업을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지역 산업 인프라와 교육을 연계해 전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로, 최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차별 해소 종합정책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내일 전주생명과학고서 식품산업 채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산업 채용설명회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 취업 로드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품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10개 직업계고 식품계열 학과 학생 120여 명이 참여해 식품 관련 기업의 채용 정보와 직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사에는 CI푸드빌(음성공장)과 모나오피드포인트, 에이본 호텔 등이 참여해 식품가공과 조리, 서비스 분야 직무 소개를 비롯해 채용 절차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설명한다.

학생들은 사전에 조사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관심 기업에 대한 취업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CI푸드빌(입스)과 베스트웨스턴 호텔이 참여해 식품제조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를 이해하고 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우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의 문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미래학교 운영 내실화

전북교육청, 내달 5일까지 147곳 맞춤형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미래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북미래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컨설팅을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교(원)장과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된 154명의 현장지원단이 참여해 유치원 4곳,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34곳 등 총 1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학교의 운영 연차와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1년 차 전북미래학교와 IB 학교 55곳은 도교육청 미래교육과가 맡고, 2·3년 차 학교 92곳은 각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중점과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별 창의적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전 자체 점검부터 사후 결과 공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북미래학교가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는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가정·학교 협력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유성동 교육감 예비후보, 가정의 달 맞아 메시지 발표

세대 소통 강화 위한 '세대 이음 리터러시 주간' 제안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과 부모의 사랑을 잇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가정의 교육 기능이 약화될 경우 아동방임과 학대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춘 교육 방식 전환과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 예비후보는 어린이날 메시지에서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는

존재"라며 "성적 중심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웃음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과 관련해서는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보호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며 "세대 간,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의 벽을 허물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대 이음 리터러시 주간' 운영을 제안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우리집 마음 읽기 숲속 쉼터'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전하는 편지 또는 문자쓰기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기록하는 '지혜 모음 기록단' 등이다.

유 예비후보는 "5월은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내 학생 마음건강·자기조절력 향상 돕는다

전북교육청, 도내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인성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감성기반 인성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26년 도내 초·중·고 155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명상을 통해 자기 인식과 조절 능력을 키우는 '비움별 프로젝트' △감정 표현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배우는 '비움결 프로젝트'

△세대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효로 배우는 인성' 등이다.

'비움결'과 '비움결' 프로젝트는 각각 2회씩 총 4시간 운영되며, '효인성교육'은 1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된 인성교육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보탠다.

도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움결' 프로젝트

/오상근 기자

개인병역수치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